

- 본문 : 누가복음 15장 11~32절
- 제목 : “두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의 농장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집과 농장 주변을 아들과 함께 걷기만 했다.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린 시절에 뛰놀던 곳과 가족에 대한 추억을 회상시켜 주고자 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뿐이다. 네가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해 보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아닌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것과 한 마디 한 마디 말은 모두 사랑의 표현이다. 당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추억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림이라고 느끼는 영적인 추억은 무엇이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다. 특히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2.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난 작은 아들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그때 작은 아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17~19절)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가?
3.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는가?
4.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22절)
5. 동생이 돌아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형인 큰 아들이 화를 내면서 불평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9~30절, 31절)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은 큰 아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집 안의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말씀기도제목**

1. “죄인이 죄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구원 받아야 할 죄인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통해 “회개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사,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